• 제 1 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③	2	①	3	④	4	①	5	①	6	①	7	④	8	②
9	③	10	⑤	11	③	12	⑤	13	③	14	①	15	⑤	16	①
17	①	18	③	19	①	20	②	21	④	22	⑤	23	②	24	⑤
25	④	26	⑤	27	④	28	②	29	②	30	④	31	⑤	32	④
33	①	34	②	35	④	36	④	37	①	38	③	39	④	40	④
41	③	42	④	43	③	44	②	45	⑤	46	③	47	④	48	⑤
49	②	50	⑤	51	①	52	②	53	③	54	③	55	③	56	⑤
57	②	58	③	59	②	60	④								

해 설

[1] 이제 여러분은 옛 그림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그럼 이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감상해 보면서 우리 문인화의 묘미를 느껴 보기로 합시다.

우리 옛 그림들은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대로 감상하려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림을 감상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그림을 유심히 보면, 여러 개의 사선들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말을 탄 선비와 하인이 등장합니다. 말을 탄 선비는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하군요. 바로 나뭇가지 위에 있는 꾀꼬리 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위를 올려다보는 선비의 시선은 하나의 사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선은 버드나무의 잔가지가 이루는 사선과 평행을 이루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위쪽의 화제(畵題)를 보시죠. 화제 글씨가 이따금씩 커지고 진해졌는데, 그것이 옆 행으로 서로 이어지면서 비스듬한 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화제의 진한 글씨끼리 사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여백이 꽤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여백이 넓다는 것은 화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 원숙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길이 비스듬히 나 있어서 길의 방향 역시 사선을 이루고 있다는 게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선들을 눈여겨 보면, 이 그림은 구성이 절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며 듣는다.

이 강연에서 연사는 화제(畵題)의 글씨가 이루는 사선, 꾀꼬리를 올려다보는 선비의 시선이 이루는 사선, 길의 방향이 이루는 사선, 버드나무의 잔가지가 이루는 사선들에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화가의 원숙미를 드러내는 여백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이번에는 뉴스 기획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첨단 산업의 미래'란 주제의 기획프로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장래에 큰 역할이 기대되는 로봇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나오십시오.

이승철 기자: 네, 로봇 산업은 차세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의 개발에 선진국이 앞장을 서고 있다는데 로봇 공학 연구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봇 공학 연구소장: 선진국에서 지능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의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능형 로봇이 생활 속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지능형 로봇 산업을 일손을 돕는 서비스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곤란해요. 현재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용 로봇 분야를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로봇 산업은 반도체나 생명 공학을 비롯한 다른 첨단 산업에 핵심 설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승철 기자: 그러면 여기서 제어계측공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로봇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자동차라든가 중장비,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지능형 로봇은 초기에는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형태를 띠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 메커니즘만을 로봇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지능형 로봇 산업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산업 현장에 쓰이는 기계로봇을 개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로봇과 인간을 결합시킨 일종의 '로봇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사람처럼 행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일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 두 분의 말씀처럼 일선 산업 현장에도 유용하게 쓰이면서 인간의 생활 속에 동화될 수 있는 차세대 로봇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로봇 산업의 성패는 우리 공학도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2. [출제 의도] 두 화자의 다른 견해를 듣고 그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한다.

로봇 공학 연구소장은 우리 나라에서 앞으로 지능형 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의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제어계측공학과 교수는 이와 반대로 지능형 로봇이 가까운 미래에 현대인의 생활 속에 동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지능형 로봇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로봇 산업 개발 방향이 지능형 로봇 분야와 산업용 로봇 분야로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오답 풀이] 두 학자 간에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드러난 것은 아니며, 로봇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국가 간에 다르므로 두 학자 사이의 견해 차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그리고 로봇 산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차이가 드러나서 두 학자 간에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도 아니다. 로봇 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로봇 공학 연구소장의 말에서만 드러난다.

[3] 다음은 국어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오늘은 구개음화에 대해 알아볼까. 철수야 너는 구개음화가 뭐라고 생각하니?

철수 : 구개음으로 되는 현상이겠죠 뭐.

영희 : 아니야. ㄷ이나 ㅌ이 ㅣ모음과 만나면 ㅈ이나 ㅊ으로 바뀌는 거야.

선생님 : 둘 다 대답 잘 했다. 철수는 명칭을 가지고 답하려고 했던 것이고, 영희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운 걸 말한 거겠지?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철수・영희 : (동시에) 예.

선생님 : 먼저 영희에게 물어볼까? 네가 답한 건 구개음화 현상을 이해한 걸까, 아니면 현상의 겉모습을 암기한 걸까?

영희 : 그러고 보니까 이해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선생님 : 이번엔 철수! '구개음으로 되다'라고 답한 네 말엔 문제점이 없을까?

철수 : (우물쭈물하다가) 글쎄요

선생님 : 주어가 없잖아.

철수 : 아! 선생님. '비구개음이 구개음으로 되다'로 고칠게요.

선생님 : 그게 완벽한 답이라면 구개음화 현상 때문에 모든 음이 다 구개음으로 발음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있어야 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 구개음화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구개음이 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이야.

철수 : 선생님! 전 그냥 명칭을 보고 대충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선생님 : 그럼! 모든 현상은 처음부터 그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 현상을 가장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용어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지. 글의 제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문법에만 국한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거야.

철수 : 뭔지 조금 알 듯도 하네요. 그럼 영희가 답한 건 뭐가 문제예요?

선생님 : 음~. 여기 악보가 하나 있다고 하자. 전혀 불러 보지도 않고 눈으로만 본 다음 그 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영희 : 아니요.

선생님 : 구개음화가 음운 현상이라는 걸 안다면 반드시 각각

의 음운을 실제로 발음해 보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지. [ㄷ,ㅌ]이 [ㅣ]모음과 만나면 왜 [ㅈ,ㅊ]으로 발음되는가를 생각해 봐. 그러면 깨닫는 게 있을 거야. 발음해 볼까? (의도적으로 천천히)[해도디] [해도지] [해도디] [해도지]

3. [출제 의도] 제시된 상황을 통해 숨겨진 의도를 추리한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자세를 일깨워 주려고, '구개음화'를 소재로 삼아 두 가지 접근법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밑바탕에는 '실제적 사고와 적용'의 중요함이 깔려 있다. 이제부터의 설명을 잘 보자.

첫째, [명칭]으로 접근하는 법.

듣기 지문을 보면, 철수는 구개음화 현상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음운을 이야기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의의가 있다. [명칭]은 현상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다. 현상의 특징적 모습을 단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용어가 [명칭]이다. 글의 [제목]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명칭], [제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상]이나 '글'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내용]으로 접근하는 법.

구개음화가 음운 현상이라는 걸 안다면 실제로 발음을 해 봐야 한다. [ㄷ,ㅌ], [ㅣ], [ㅈ,ㅊ]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발음해 보자. 그러면 [ㄷ,ㅌ]는 혀끝이 윗니의 안쪽에 살짝 닿는다는 걸 알 수 있다. [ㅣ], [ㅈ,ㅊ]는 둘 다 [ㄷ,ㅌ]보다 약간 안쪽에서 발음된다. 즉, [ㅣ], [ㅈ,ㅊ]는 같은 자리에서 발음된다. 그러면 '디[ㄷ+ㅣ]'와 '지[ㅈ+ㅣ]'를 발음하면서 생각해 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자리에서 발음되는 것끼리 만났을 때 발음하기 편할 것이요, 실제로 발음해도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ㄷ,ㅌ]은 비구개음, [ㅈ,ㅊ]은 구개음이다. 구개음으로 바뀌었고 발음하기 편해졌다는 걸 알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음운 현상이란 발음하기 편하게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명칭]+[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문학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고 비문학적인 글에도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은 선생님의 말씀에 드러나 있고, ②, ③은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일깨워 주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다. ⑤는 나타나 있지 않다.

[4] 이제 여러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 편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문제와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는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인물들 중에 제갈공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의 지략이 삼국지의 재미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제갈공명과 관련된 다음 장면을 좋아합니다. (사이)

위나라 사마의는 15만 대군으로 자만에 빠진 촉나라의 마속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갈공명이 있는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사마의는 멀리 성이 보이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군사들을 독려합니다. 필생의 라이벌인 제갈공명을 잡으면 천하가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갈공명이 있는 성에는 변변한 장수 하나 남아 있지 않았고, 문신들은 하얗게 질린 낯으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어떤 희망도 없다는 사실에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갈공명은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사마의는 제갈공명이 있는 성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촉나라 군사들은 간 곳 없고 마치 자신을 환영이라도 하듯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백성들은 성안의 바닥을 쓸며 태연할 뿐 아니라,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까지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 위의 망루를 바라보니 제갈공명이 미소를 띠며 거문고를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마의의 병사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마의는 함정이나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군대에 철수명령을 내리고 회군을 하게 됩니다. (사이)

만약 여러분이 제갈공명의 처지였다면 어떠했을까요? 혹시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 사마의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이)

이제 문제와 답지를 들려 드립니다. 이 강연의 주제를 가장 잘 이해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사이)

첫째 학생(남) :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어.

둘째 학생(여) : 군대의 힘보다 문화의 힘이 더욱 위대함을 알게 됐어.

셋째 학생(남) :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상황을 속단하지 말라는 뜻이야.

넷째 학생(여) :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섯째 학생(남) :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고 상대를 무시해서는 안 돼.

4. [출제 의도] 연사가 인용한 예화를 중심으로 강연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제갈공명은 위나라의 15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당황하기보다는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이로 보아 강연의 주제는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제갈공명이 거문고를 연주하여 사마의의 군대를 회군하게 하지만, 이것은 강연의 예화 중의 한 부분으로, 군대의 힘보다 문화의 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③ 연사는 사마의보다 제갈공명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

[5~6] 이제 여러분은 광고 방송을 듣고, 두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광고>와 <대화> 두 부분을 잘 듣고 5번과 6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아니 자네 무슨 고민 있나?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B: 자네 말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걸 봤다면 어떻게 하겠나?

A: 뭐! 아니 그럼 신고부터 해야지 이 사람아.

B: 신고? 어디다?

A: 어디가 어디야 부패방지위원회지.

B: 에이 아니야. 괜히 원수져서 복수라도 당하면…….

A: 아하, 이 사람 깜깜하군. 신고한 사람은 법의 철저한 보호를 받고 거기다 2억 원의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랐나? 자자, 용기를 내게, 응! 전화도 된다네. 뭐하나? 지금 당장 전화하라니까.

여자 목소리 : 여러분의 용기가 선진 투명 사회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이)

안내멘트 : 이제부터는 이 광고를 듣고 남녀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사이)

남자 : 난 이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여자 : 무슨? 부정을 신고해서 사회를 바로잡자는 데 뭐가 문제야?

남자 :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문제라는 거지. 이 광고를 잘 들어봐.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보복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다'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건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어린아이로 본 거라니까.

여자 :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어?

남자 :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방법이 중요한 거야. 일전에 신호 위반 차량을 사진 찍어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만 위반 사례가 줄었던 것이 좋은 예잖아.

여자 : 그럼 네가 말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뭔데?

남자 : 가정이나 사회가 갖고 있는 교육적 기능을 통해 건전한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함양해야지. 가치관은 저절로 형성되는 거라고 손놓고 있으면 되겠어?

여자 : 네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세월에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겠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한다면 사회에 경종을 울리게 되고 어쨌든 사회가 깨끗하게 되겠지. 네가 생각하는 방법만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

5. [출제 의도] 설명에 담긴 정보를 파악한다.

우리 사회를 선진 투명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는 잘못된 관행을 불식시키고 이를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광고의 의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택한 방법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불식'과 '거액의 보상금'을 통해 신고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6. [출제 의도] 말하는 이의 태도를 분석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는 추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행동 주체인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동 주체인 인간을 통한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략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각각 보여주는 것이 듣기 대본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이다.

남자 -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교육을 통해 행동 주체인 인간이 건전한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육'이니 '평생교육'이니 하는 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이고 우회적이다.

여자 -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의 특징은 제도적이고,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것이다.

[오답 풀이] 두 사람 다 사회의 부정을 불식하여 사회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⑤) 의지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지만(②), 그 방법에 있어 이견을 보인다고 하겠다(①). 그러므로 태도에 있어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의 구분도 있을 수 없고(④), 또한 가치관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구분할 수도 없다(③).

7. [출제 의도] 만화에서 연상되는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주제를 찾는다.

제시된 만화를 보면 장애인이 열심히 살고 싶어도 최저 생계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좌절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좌절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제도로 보고 있으므로 정답은 복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④가 된다.

[오답 풀이] ①과 ②는 만화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며 ⑤는 장애인 취업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

8. [출제 의도] 주제에 맞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

'주 5일제 수업의 확대 실시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제의 보고서에 담을 내용은 보기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어야 한다. ②는 문제점과 연결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식이 부족한 답지이다.

[오답 풀이] ①은 평일 수업 부담의 증가 문제와, ③은 사회의 교육 기반 시설 부족 문제와, ④는 학부모의 인식 부족 문제와, ⑤는 맞벌이 가정의 생활 지도 공백 문제와 연관되며 각각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되고 있다.

9. [출제 의도] 논지를 타당성 있게 전개할 수 있다.

③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남녀 평등 사회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⑤는 국민 의식 변화를 위한 방안이며 ②, ④는 양성 평등 사회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다.

10. [출제 의도] 글감을 수집하여 글의 주제에 맞게 적절히 조직한다.

'ㅈ'은 청년 실업의 고착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인데, 청년 실업이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게 되면, 이것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므로 사회 차원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삭제하면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청년 실업률 증가는 곧 구직 포기 현상을 초래한다. ②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 실업을 가속화한다. ③ 대졸자 즉 고학력자가 증가하는데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다. ④ 근로 의욕 및 취업 의지 약화는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글의 도입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11. [출제 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문장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③번은 '엄마는'이 주어, '보온밥통이다'가 서술어이므로 조건1)을 만족시키고, 은유법을 써서 엄마를 보온밥통에 비유하였으므로 조건 2)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따뜻한'은 촉각적 이미지의 단어이므로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비유적 표현이 없다. ②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서술어가 없으므로 조건 1)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⑤ 비유적 표현이 없고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12. [출제 의도] 어법을 고려하여 고쳐쓰기를 할 수 있다.

㉣은 앞의 화제와 연결되면서 글의 주제를 담고 있으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느낌을 드러낼 때에는 ㉠과 같이 '매운 것 같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의 '손이 뻗쳐졌다'는 외국어 번역투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아니다.

13. [출제 의도] 단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③의 '삼갑시다'의 기본형은 '삼가다'로 바른 표현이다. '삼가합시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고마와요'는 '고마워요'가, ② '틀린'은 '다른'이, ④ '설레인다'는 '설렌다'가, ⑤ '날라가고'는 '날아가고'가 맞다.

14. [출제 의도] 뜻의 차이를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규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문맥의 의미로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실연을 당한'에서 '감상적'이란 단어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응'에서 '감정적'이, '이지적'과 상대어라는 점에서 '감성적'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오답 풀이] '감상'이란 단어는 한자가 다름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감상-적'은 '하찮은 일에도 쉽게 감동하고 슬퍼하는 경향인…'이라는 뜻이다.

[15-19] (가) 이형기의 낙화, (나) 정희성의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다)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

15. [출제 의도]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시적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가)의 화자는 미래의 성숙한 사랑을 위해 낙화와 같은 이별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임과 하나의 꿈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의 화자는 견우와 직녀처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이별을 긍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와 (다)의 시적 화자는 현실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 ④ 재회에 대한 희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나), (다)이다. (가)에서는 보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 이별을 하는 것이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것은 아니다.

16. [출제 의도] 시의 의미를 이해하여 시구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은 역설적 표현이다. '결별'과 '축복'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표현된 내용 안에서 서로 모순이 일어나는 것을 '역설'이라 한다. ① '어둠은 환희'라는 논리는 역설이다. '어둠'과 '환희'가 서로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사슴이라는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해서 표현하고 있다.

③ '내 마음은 낙엽, 나는 나그네 같이' 등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④ '포근한, 푸른' 등의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7. [출제 의도] 시적 상황과 분위기를 이해하여 시어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열매'는 '낙화'라는 자기 희생(이별)을 통해 얻어지는 '성숙한 만남'(결과물)을 뜻하며, 화자로 하여금 현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 '비단'은 화자가 현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승화'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 '겨울'은 화자가 겪고 있는 시련을 의미한다.

18. [출제 의도] (나)의 [A] 와 <보기>의 표현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효과를 파악한다.

<보기>에서는 (나)의 [A] 와는 달리 '나는 기다리리……수 있다면'의 문장 구조를 각 연에서 반복하여 시에 일정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나 (나)의 [A] 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② '나는 기다리리'란 표현을 연의 앞 부분으로 옮기면 오히려 시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된다. ④ 추가된 비유적 표현이 없다. ⑤ (나)의 [A] 에서 모호한 시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19. [출제 의도] 시의 내용과 형식에서 드러난 특징을 바탕으로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화자와 청자가 대화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과 '직녀여'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인 '견우'가 청자인 '직녀'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 윤흥길, 기억 속의 들꽃

20.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작품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관찰자를 어린이인 '나'로 설정하고 있다. 작품의 주인공은 '명선'이라는 어린 소녀인데 전쟁에 휘말리면서 폭격에 부모를 잃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친척으로부터 도망쳐 어느 마을에 나타난 후 그 마을 어른들의 탐욕스러움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된다.

①은 3인칭 관찰자 시점, ②는 1인칭 관찰자 시점, ③은 전지적 작가 시점, ④는 1인칭 주인공 시점, ⑤는 관찰자 시점에, 전지적 시점이 혼합된 것이다.

21. [출제 의도]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을 적용하여 감상한다.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표현론, 독자에게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감상하는 것을 효용론, 현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반영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외재적 감상에 속한다. ④는 작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내재적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①은 표현론적 관점, ② 반영론적 관점, ③ 표현론적 관점, ⑤ 효용론적 관점이다.

22. [출제 의도] 다른 장르로 바꾸어 표현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본다.

[A] 부분과 <보기>의 글을 비교하면서 <보기>의 글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면서 <보기>의 글에 나타난 것은 '폭격에 부서진 다리'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평화로운 마을이 전쟁에 휘말리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23. [출제 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

'㉠콘크리트 더미, ㉢바람, ㉣흙탕물, ㉤비행기'는 '전쟁'이나 '소녀의 죽음'과 연관지을 수 있는 어휘들이다. '㉡꽃송이'는 전쟁 속에서 소녀의 생명력을 상징한다.

[오답 풀이] ㉠'콘크리트 더미'는 참혹·비정한 전쟁 상황을, ㉢'바람'은 꽃이 강심으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 즉 소녀의 죽음을 유발하는 소재임을 상징하고, ㉣'흙탕물'은 꽃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소녀의 죽음과 관련된다. ㉤'비행기'는 부모의 죽음과 소녀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재이다.

24. [출제 의도] 작품 감상의 관점 파악하기

'남쪽으로 피란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딱할 정도로 조바심치기 시작했다. 내가 벌써 귀띔을 해 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구절을 보면, 어머니도 금반지에 대한 욕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5-29] (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나) 정약용, 타맥행 (다) 사설시조

25.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시적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 (나)는 농부의 삶에서 느끼는 건강성, (다)는 분주한 일상사에서 갖는 삶의 여유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의 시적 화자는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①은 (가)에만, ②는 (다)에만 ③은 (나)에만 해당되는 말이며, ⑤는 해당 작품이 없다.

26. [출제 의도] 앞 뒤 문맥을 통해서 시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어부사시사'에서 보여주는 자연 친화적 태도의 이면에는 세속적인 공간으로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라는 표현에서 '인간'은 현실 세계를 뜻하고 "멀수록 더욱 좋다"는 말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말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는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다.

27.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답지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의 조건에서 제시한 첫 번째 주제 의식은 몸과 정신이 하나 된 건강한 삶의 회복이라 할 수 있고, 화자의 정서는 대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이다. ④의 주방장은 (나)의 농부처럼 자신의 일에 전념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화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허황된 꿈을 꾸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에는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아닌 자부심이 나타나고, ②, ⑤에는 대상만 묘사하고 있고, ③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나타난다.

28. [출제 의도] 시에서 사용하는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다)의 표현상의 특징은 농부의 일상사를 장황하리 만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9. [출제 의도] 앞 뒤 문맥을 통해 소재의 의미를 추리한다.

㉠ '연잎에 싼 밥'은 '청약립' '녹사의' 등과 어울려 양반 윤선도가 소박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서 즐기는 풍류를 나타내는 소재이고, ㉡ '막걸리'는 흥겹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자 농부의 소박한 삶과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며, ㉢ '잎담배'는 농부가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휴식을 갖는 여유로움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적 화자의 풍류를 드러내는 것은 ㉠만 해당되므로 ②가 정답이다.

[30-34] 조현설, 문신의 역사

30. [출제 의도] 세부정보를 파악한다.

현대 사회의 대한 정의와 역사, 문신의 기능, 문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사실적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 ②, ③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으며, ⑤는 다섯 번째 문단에 나타나 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원시사회의 문신이 기능이 축소되고 변형된 채 현대에 지속된다고 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31.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비판한다.

독자의 반응을 통해서 필자의 집필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과거 문신의 부정적 의미와 현대의 문신의 의미를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문신을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문신을 '차이들의 원만한 공존'을 상징하는 지표에 비유함으로써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원만한 화합을 희망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가장 가까운 반응은 ⑤번이다.

32. [출제 의도] 설명 방법을 파악한다.

지문에서 문신의 뜻을 정의하였고, 문신의 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문신의 종류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 과거와 현대의 문신에 대한 인식 차이를 대조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오늘날 문신을 차이들의 원만한 공존을 재는 지표의 상징이라고 한 것은 친숙한 것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33. [출제 의도] 개념을 추리하여 적용한다.

'불러일으키는'의 문맥상 의미를 추리하면 '연상'이나 '환기'가 정답이다.

34.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필자는 문신이라는 소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차이들의 원만한 공존'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숙한 자세가 우리 사회가 지향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남과 다르게 사는 소수자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므로 동성애자의 방송출연 금지를 해제한 사례가 서로 다른 것들의 원만한 조화를 가장 잘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5-38] 폴 휴이트, 수학 없는 물리

35. [출제 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첫 번째 단락에 '자연과학에서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까지의 협약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 때 '자연과학의 사실'은 '공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추측'은 과학적 가설이 아니며, 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이 되지 못한다. ② 과학자조차도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에 끌린다.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것도 많다. ③ 자연과학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강점이다. ⑤ 과학자는 예상치 못한 실험 결과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36. [출제 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 글의 요지는 '과학자는 기존의 가설이나 이론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자세보다 다양하게 사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글이다.

[오답 풀이] ①, ②는 타당함을 밝힐 수 없으며, ③, ⑤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37. [출제 의도] 제시된 정보를 세부내용에 적용할 수 있다.

기존의 원리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등장했을 때, 과학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네 번째 단락에 제시되어 있다. <보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문의 '실험적 결과'에 해당되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기>의 경우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38. [출제 의도] 내용을 파악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갈릴레오는 '실험적 결과'가 아닌 의문과 추측에서 출발하여 '사실'을 바꾸었고, <보기>의 경우는 새로운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여 그것을 검증하므로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다르다.

[오답 풀이] '지구의 모양이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대칭의 타원형이다.'와 ㉠은 기존의 이론을 제시한 것이며, '사람들은 그 주장을 타당하게 여겼다.'와 ㉡은 그 당시에는 '사실'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엄밀한 실험과 수학적 계산'과 ㉢의 '자유낙하 실험'은 과학적인 검증방법을 말하며,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사실의 내용이다.

[39-42] 성낙수, '표준어와 방언'

39. [출제 의도] 글을 읽고 글 속에서 다룬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표준어의 기능과 더불어 방언이 지닌 가치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방언 속에 옛말이 남아 있어서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 방언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40. [출제 의도] 글 속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이해하여 적용한다.

글쓴이는 표준어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두루 쓰이면 표준어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만일 어떤 단어가 두루 쓰이지 않으면 표준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속어는 표준어가 될 수 없다. ②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해서 모두 복수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소고기'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⑤ 서울 방언은 서울말에 속하지만 표준어가 될 수 없다.

41. [출제 의도] 글에서 설명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찾는다.

<보기>는 한 단어의 여러 방언형이 그 단어의 역사적 어형 변화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은 방언의 가치 중 '방언이 옛말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밀접히 연관된다.

42. [출제 의도] 글을 읽고 글쓴이가 기본적으로 전제로 삼은 바를 추리한다.

④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기호성을 설명한 것인데 이 글에서 언어의 기호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설명한 표준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연관된다. ② 이미 쓰이지 않게 된 말은 표준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성을 지닌다. ③ 방언 속에 우리 민족의 정서나 사상이 들어 있다는 서술과 관련 있다. ⑤ 공용어로서 표준어가 지닌 성격과 관계가 있다.

[43-46] 이상은, 『학(學)과 술(術)은 어떻게 다른가』

43.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평가한다.

본문 둘째 문단에 보면, 동양적 의미에서 '학'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이라 밝히고 있다. 이 깨달음은 지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지식은 곧 앎이다. 따라서 '학'이 앎의 상태를 뜻한다는 답지는 잘못이다.

[오답 풀이] ①은 첫째문단에서 '학'은 문화생활에서 활용되는 기술이라 말하고 있으므로 확인되며, ②는 둘째문단에서 언급하고 있고, ④는 넷째문단에 학문적 이치의 결함은 실제 응용을 통해서 발견한다고 되어 있다. ⑤는 넷째문단에 학문을 두 요소로 나누고 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학문의 개념을 '학'과 '술'로 분석하여 이 두 요소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학'과 '술'은 상호보완적이면서도 '학'이 '술'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학문의 개념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동양에서의 학문의 개념을 예로 들고 있을 뿐이다. ③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현상의 문제점이나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학문을 둘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대립되는 두 주장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45. [출제 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른 정보를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보기>는 필자가 말한 학문의 개념 중 '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요지로 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말한 글이다. 따라서 필자의 학문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술'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학'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 풀이] ①~④는 <보기>의 글과 같이 술의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다.

46. [출제 의도]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에 사용된 '길'의 사전적 의미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한다. 주로 '(-은/는/을) 길'이라는 형태로 쓰인다.

[오답 풀이] ①에서 숲 속에서의 길은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②는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는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7-51] 채희완, '멋과 흥의 춤 '

47. [출제 의도] 글을 읽고 글에 나타난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이 글에는 한국 춤의 특성을 '틀에 메이지 않는 자유로움', '자연과의 조화', '개방성', '즉흥성', '개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답지 ④에 나타난 파격성은 주제에서 벗어난 정도인데, 이 글의 여섯 번째 단락 중 '파격적인 일탈이나 불일치는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진술에 주목한다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8. [출제 의도] 글에 나타난 개념 혹은 속성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글쓴이는 우리 춤에 나타나는 파격 및 일탈이 현실에서의 도피를 뜻하는 게 아니라, 힘겨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활력을 되찾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49. [출제 의도] 관용적 표현의 성격을 이해한다.

관용적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의미를 형성한 경우'이므로 관용구의 의미는 그 관용구를 이루는 단어가 각각 갖고 있는 의미의 산술적 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②는 말 그대로 '치통(齒痛)이 있다'는 뜻이다.

50. [출제 의도] 글을 읽으면서 문맥을 살펴 생략된 내용을 추리한다.

생략된 부분의 앞 부분에, '휘모리와 같은 빠른 음악에 춤은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는 예시와 '극단적인 대비를 통한 역동적 성격이 드러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전후 문맥을 통하여 춤과 음악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⑤번을 선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④는 음악과 춤 중 하나만 표현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③은 음악과 춤이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춤과 음악의 만남에 불일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51. [출제 의도]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 ·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 춤의 특징적 성격을 파악한 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그 특성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는 서민들의 춤이 지닌 풍자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①은 이 글에 대한 심화 발전 활동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④는 우리 춤의 특성 중 '즉흥성'과 '일회성'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③은 우리 춤의 특성 중 '파격미'를 백자에서 찾는 활동이다. ⑤는 '한국인의 미적 심성'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52-55] 안병욱, <행복의 메타포>

52. [출제 의도] 글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을 이해한다.

[A]에서 글쓴이는 행복에 대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기 쉬운 통념을 반박한 것이 아니다. 만약 [A]의 내용이 일반적 통념을 반

박하는 것이라면, [A]에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으리라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통념'이라는 내용을 갖춘 서술이 나타나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행복해지는 상황,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밝히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③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을 수 있음은 어찌된 까닭일까? 요컨대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라는 서술에서 드러난다. ④ 공자의 '항산'과 '항심'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⑤ 행복의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대비한 후 주관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3. [출제 의도] 어구의 의미를 파악한다.

㉠, ㉡, ㉣, ㉤은 행복의 객관적 요소, 즉 행복의 조건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다. '돌과 나무와 흙'은 집을 짓기 위한 객관적 요소 내지 조건에 해당하는데, 행복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된 말로서 행복의 객관적 조건에 대응한다.

㉢은 행복의 주관적 요소, 즉 행복감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

54. [출제 의도] 글의 주제를 문학 작품과 연계하여 이해한다.

㉥은 결국 '스스로 행복하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에는 행복의 조건에 구애됨이 없는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55. [출제 의도] 글의 내용과 표현을 글쓴이의 의도 내지 태도와 관련지어 적절히 감상한다.

'마음의 안경'이라는 표현은 결국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서술은 행복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행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행복은 마음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독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② 글쓴이는 맹자의 행복의 논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④ 글쓴이가 달에 대해 언급한 것은 동일한 것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인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⑤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언급한 데서는 글쓴이의 현실 감각을 엿볼 수 있다.

[56-60] 이옥(李鈺), 성진사전(成進士傳) -이가원(李家源) 옮김

56. [출제 의도] 종합적 이해와 감상 능력을 평가한다.

[A]에 등장하는 인물은 성희룡과 비렁뱅이 그리고 종이다.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신분에 따른 대립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갈등 양상은 비렁뱅이가 성씨를 찾아와 밥을 얻어먹고는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어와 자신의 계교를 이루려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비렁뱅이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고 성희룡은 관대한 처신을 함으로써 해소되는 과정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신분에 따른 대립적 갈등 양상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은 ⑤

[오답 풀이] ①종과 성희룡, 성희룡과 비렁뱅이의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②사건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③비렁뱅이는 처음에 시비를 걸어 걸려들면 협박을 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였다. 그래서 점차 거칠게 대하지만 성희룡이 덕을 베풀자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포기하고 돌아간다. 인물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다. ④사건이 긴장된 상황으로 진행되다가 비렁뱅이가 포기하고 돌아감으로써 해소된다.

57. [출제 의도] 사실적 사고 - 고전산문의 표현의 특성을 파악한다.

<보기>의 내용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목소리를 내는 형식을 말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작가의 의도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 들어온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정답은 ②

[오답 풀이] 정답을 제외한 답지는 글의 내용에 관련된 사실을 말하고 있으므로 서술자 개입과 같은 의미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58.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 -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는 종이 어이없어 하는 심정으로 비렁뱅이의 행동을 주인에게 고하는 대목이다. 밥상을 받은 것을 고마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릇까지 훔쳐가려는 모습에 기가 막힌 심정을 추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은 ③이다. 이 말은 편의를 봐 주면 봐 줄수록 더 요구한다는 뜻이다. 정답은 ③

[오답 풀이] ①은 가만히 있는 것을 그냥 두었던들 아무 탈이 없었을 것을, 공연히 건드려 쓸 데 없는 큰 일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②는 자기가 갖지 못할 바에야 남도 갖지 못하도록 못 쓰게 만들자는 뒤틀린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는 자기 손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남의 손에 가게 되면 더 안타까워하는 경우 사용하는 말이다. ⑤는 무슨 일을 하려는 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머뭇거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59. [출제 의도] 추론적 사고 - 인물의 의도 추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글에서 비렁뱅이는 답지에 제시된 5단계의 계교를 꾸미고 행동에 옮겼다. 그런데 답지 ②에서는 잘못 추리되고 있다. 의도적으로 훔치는 장면을 노출시켜야 시비가 벌어져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60. [출제 의도] 사실적 사고 - 핵심 주제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글에서 핵심 주제는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 할 수 있다.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말로 성희룡과 같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덕을 베푸는 경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①은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는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③은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⑤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거나 배신하는 태도를 일컫는다.